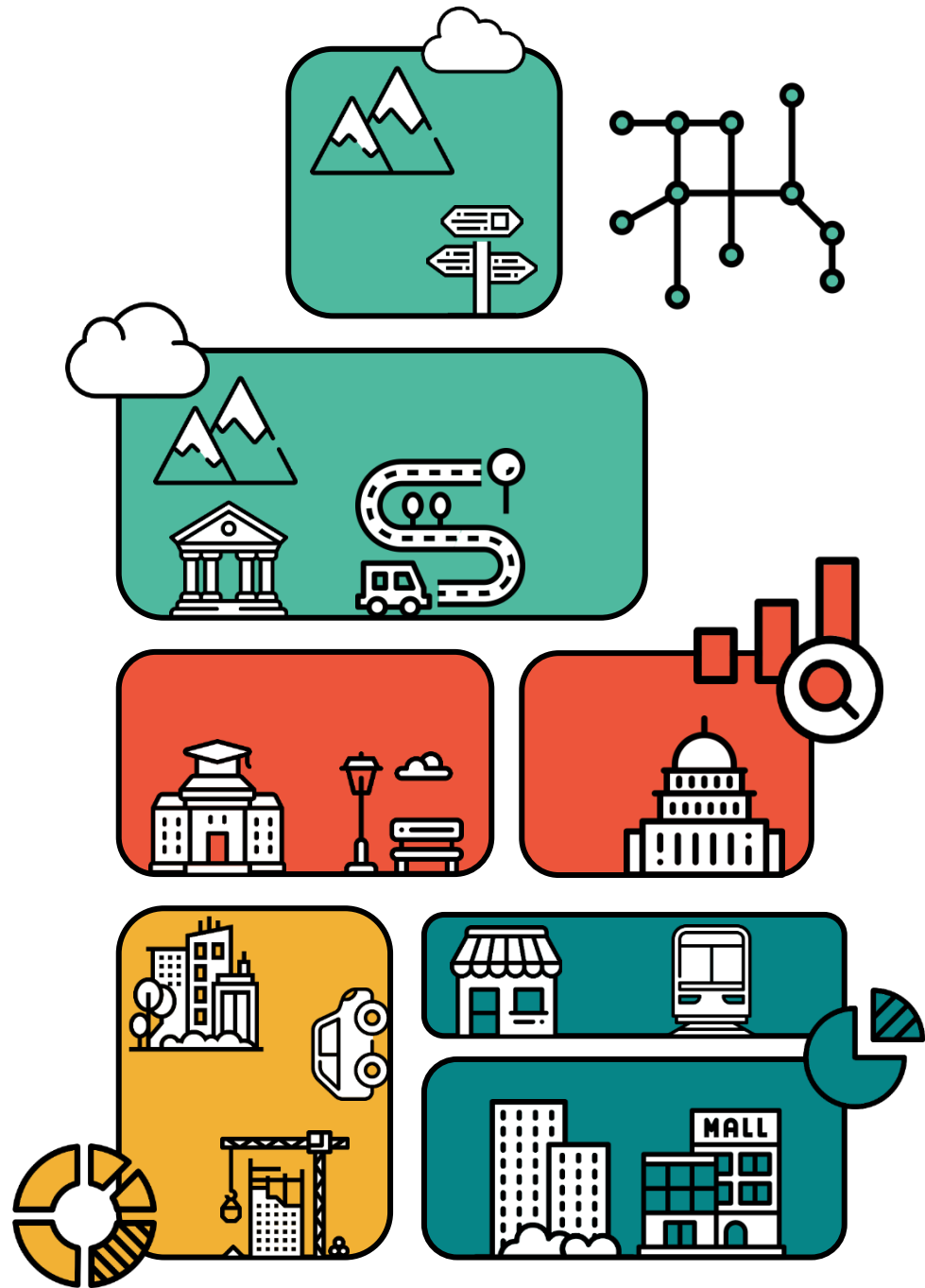


강북구 주민이 생각하는 우리동네의 행복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재경



OECD, How's Life? 2020



한국은 계층별, 남녀간, 세대간, 교육수준별 불평등이 OECD 평균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신뢰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삶의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12%로 OECD 평균(7%)보다 훨씬 컸다.

가계부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멸종위기 동물의 적색목록 등 자연자본 분야의 성과도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자본 분야 중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치에서의 남녀평등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였다.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 내용

최근의 행복논의는 개인적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경제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Beckea al, 2001)

- 인간을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
-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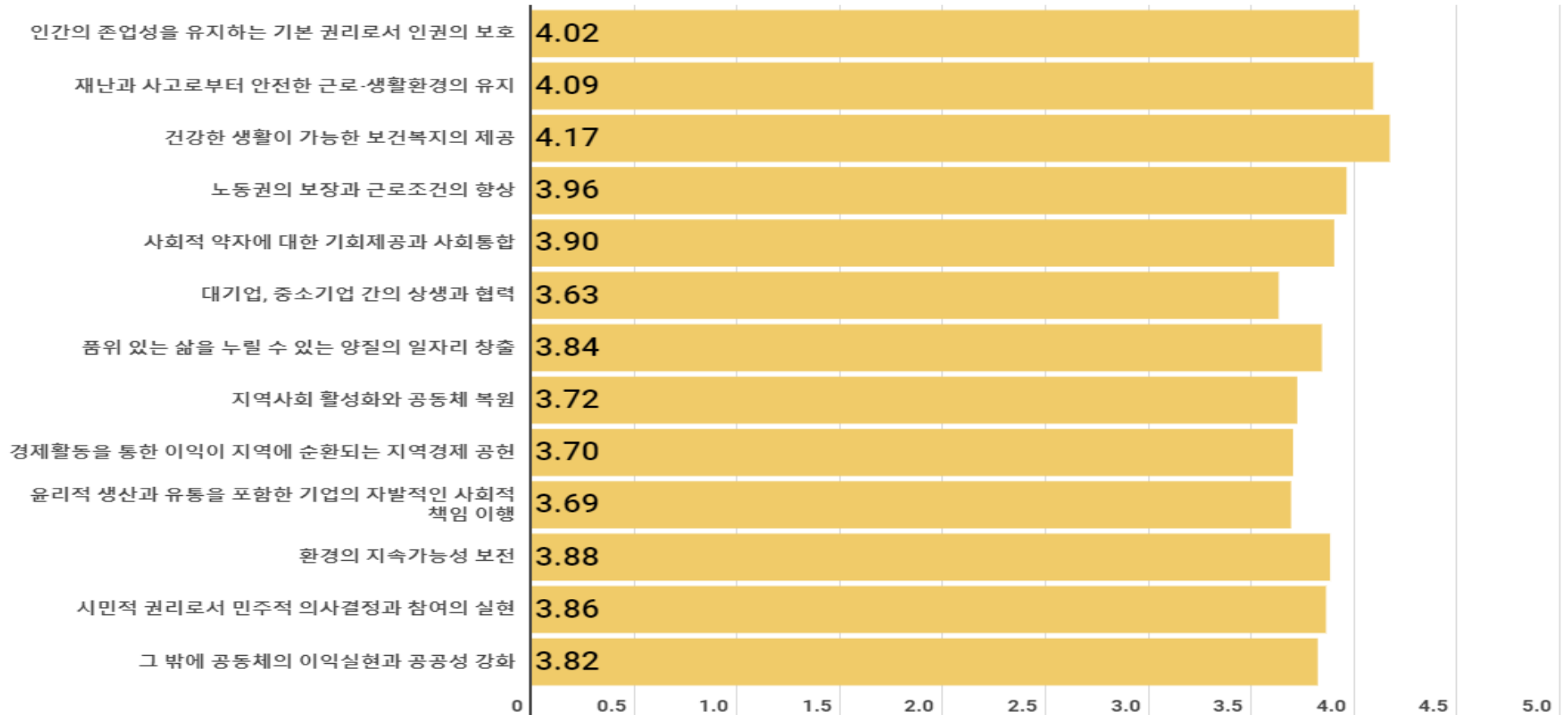
사회의 질 구성요소

-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구성원의 자원접근성 → 복지, 교육기회, 주거안정, 고용보장 등
- 사회적 응집성: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 다문화수용, 사회참여, 협력 등
-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배제의 최소화 → 평등, 소득분배, 사회서비스 등
- 사회적 역능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사회적관계를 통해 발휘되는 정도 → 인적자원 개발 등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강북구 주민들의 지역사회 및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인식파악
- 조사 대상: 강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 유효 표본: 성별/연령별로 균등 할당된 주민 1,034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 기간: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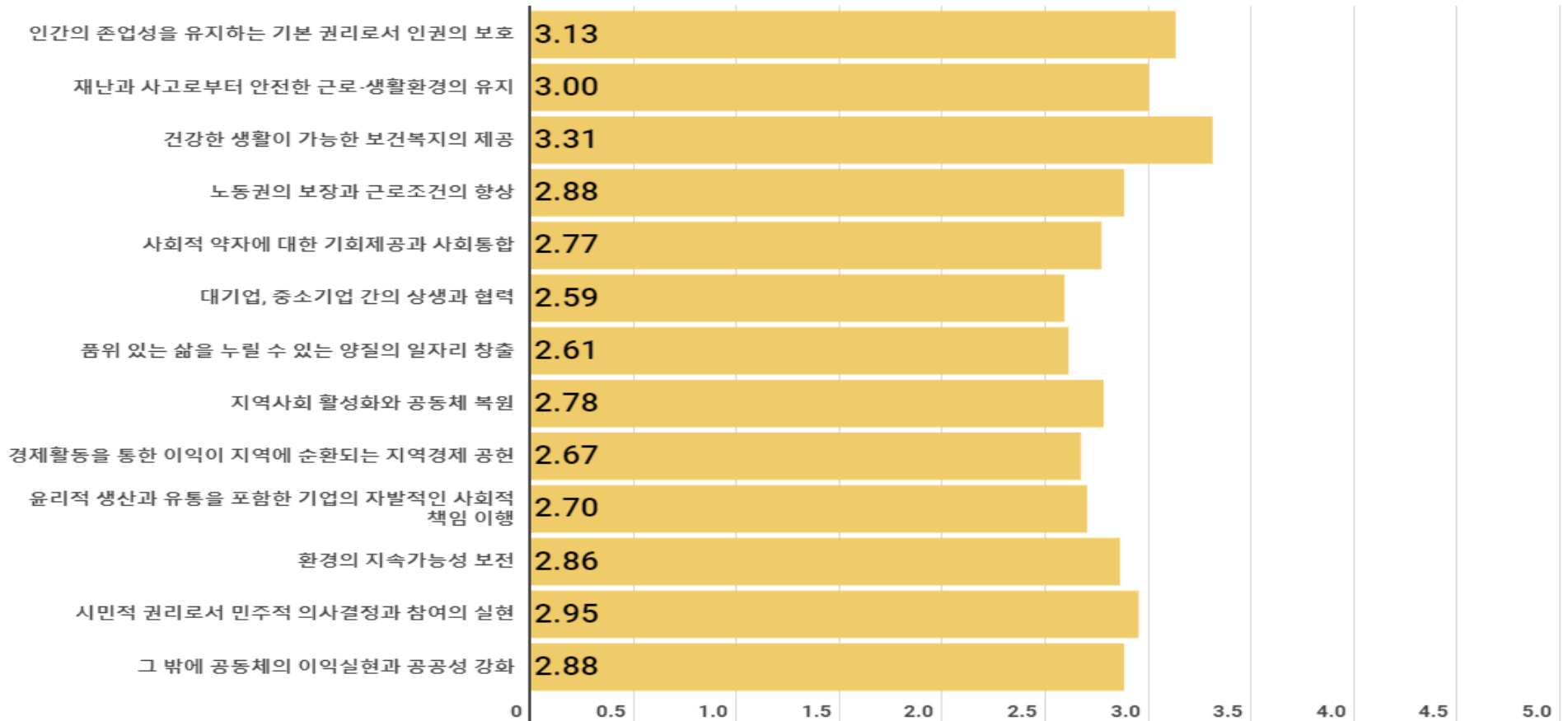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가치 중요도



강북구 주민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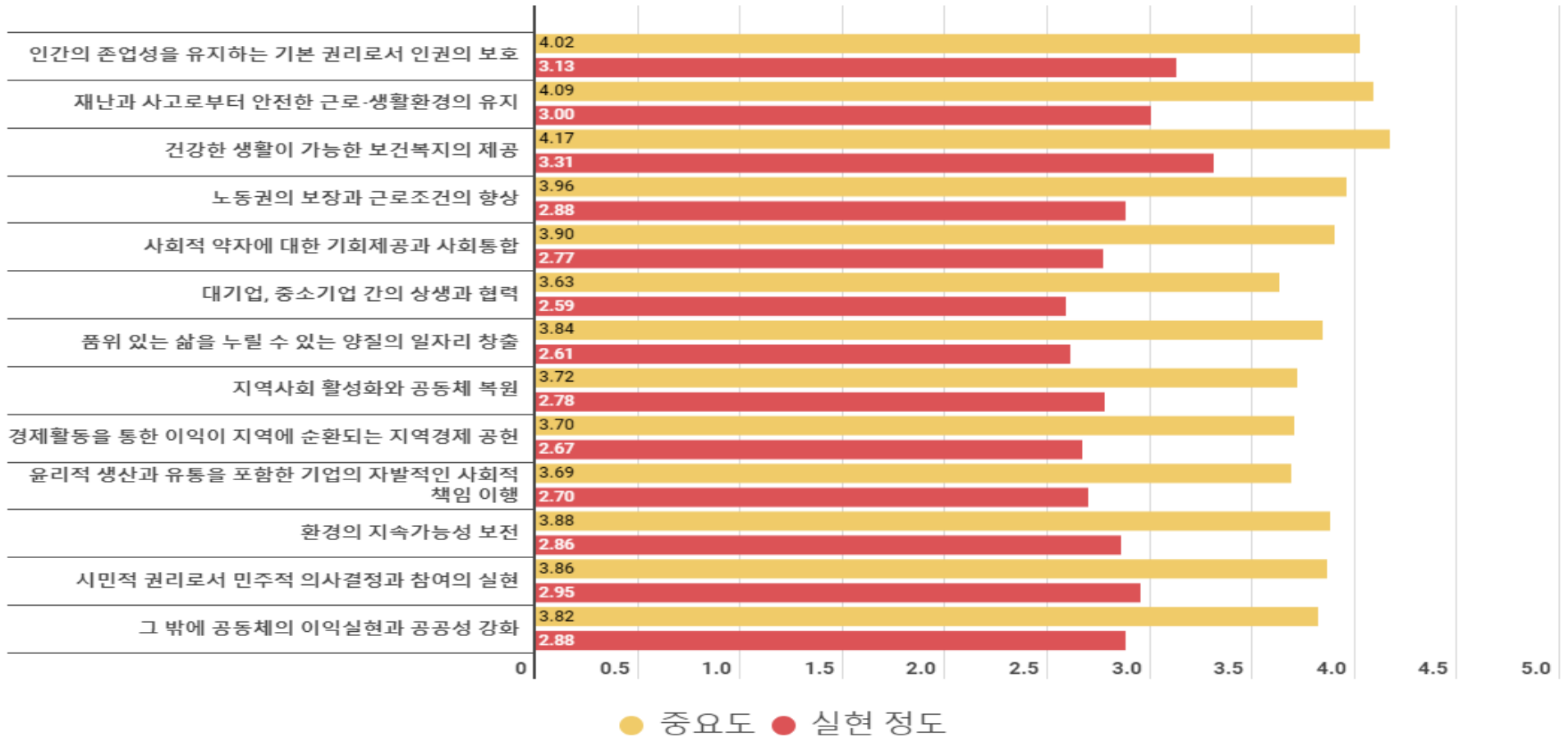
건강 >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 인권보호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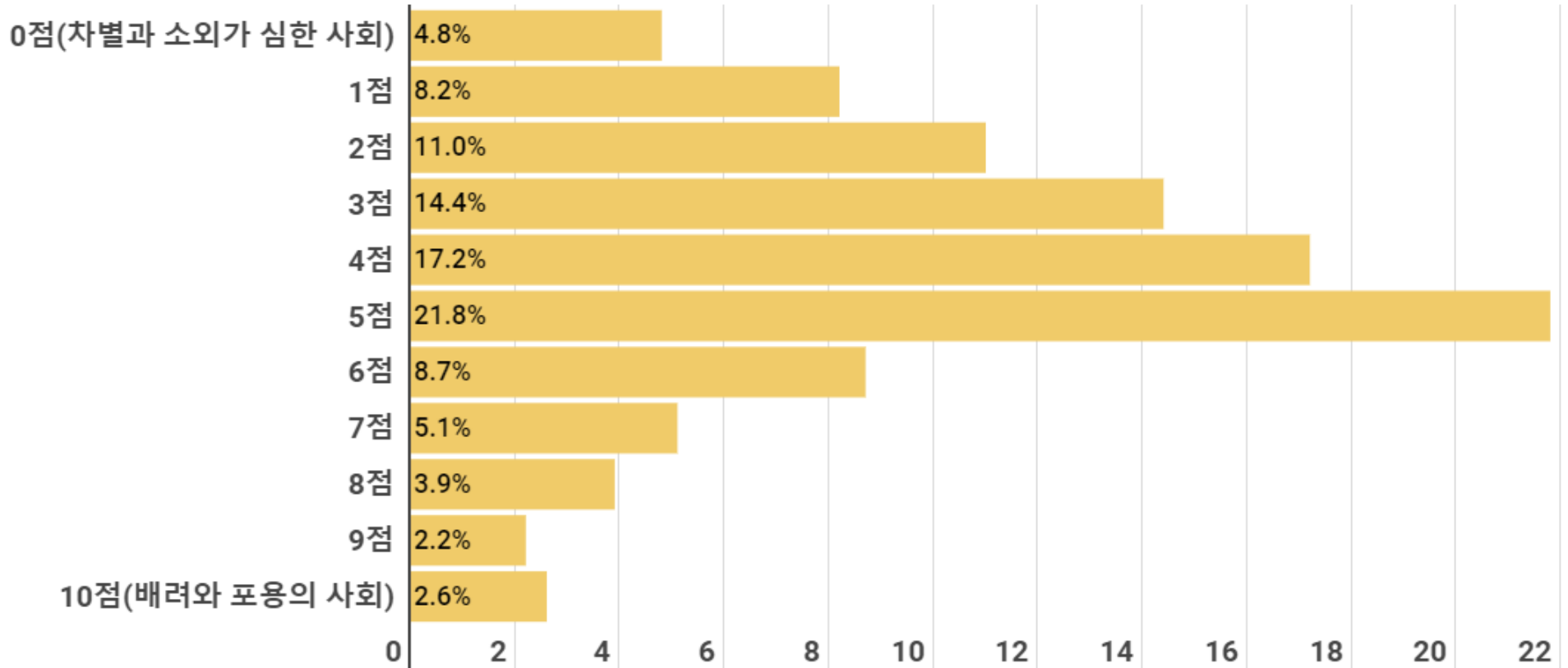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건강 > 인권 > 안전 순으로 나타남
가치의 중요도에 비해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약 1점 가까이 부정적인 응답이 확인됨.

우리 사회/지역에서 사회적가치 중요도/실현 정도



사회적가치의 중요도와 실현 정도의 격차는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1.2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1.1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1.09),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1.08),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1.0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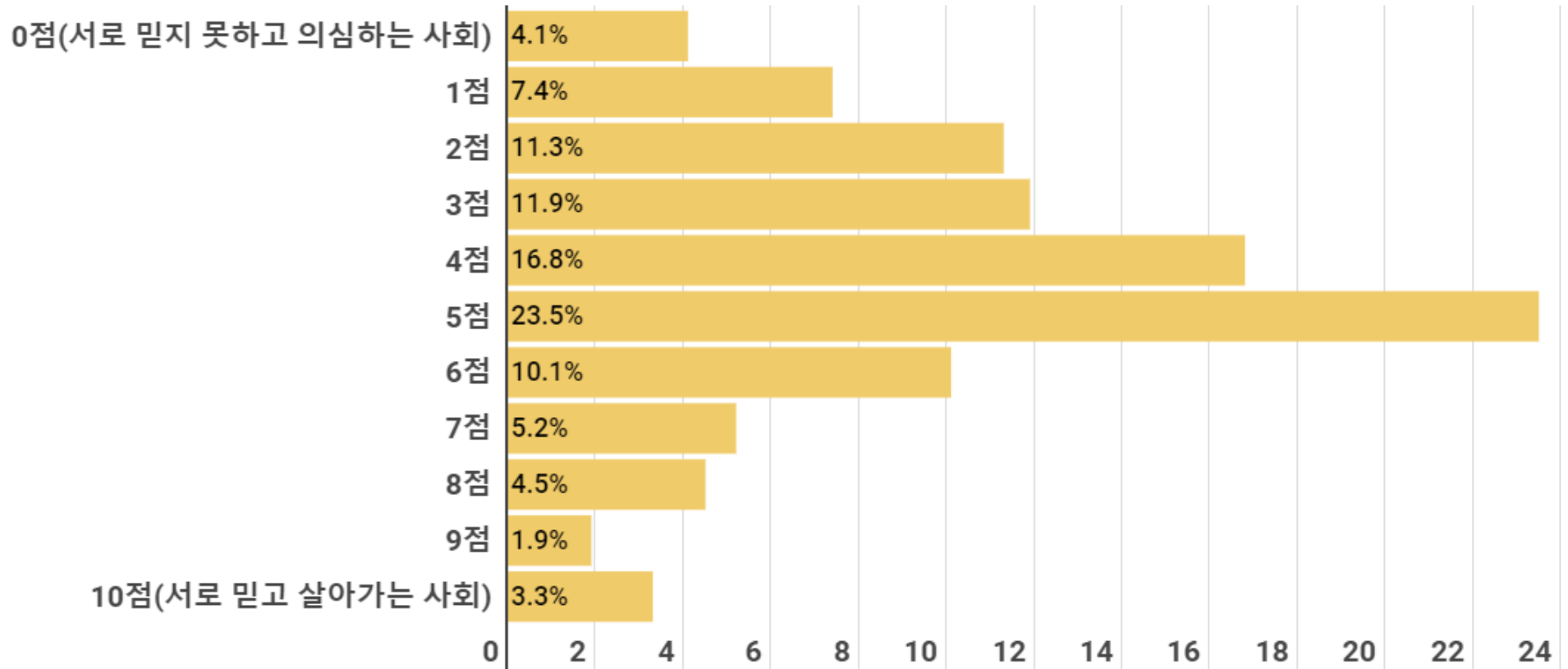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 - 차별과 포용



강북구 주민들은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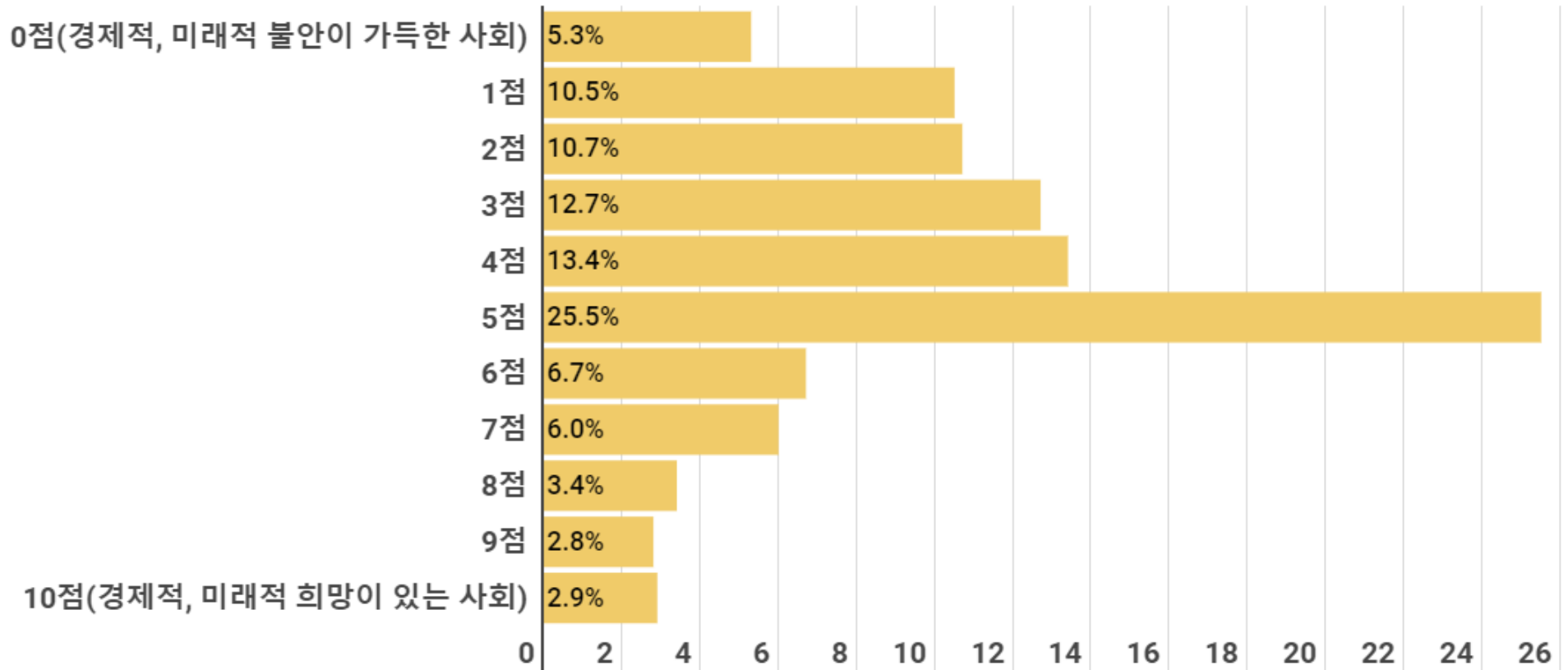
차별과 소외는 행복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현재 우리 사회 - 의심과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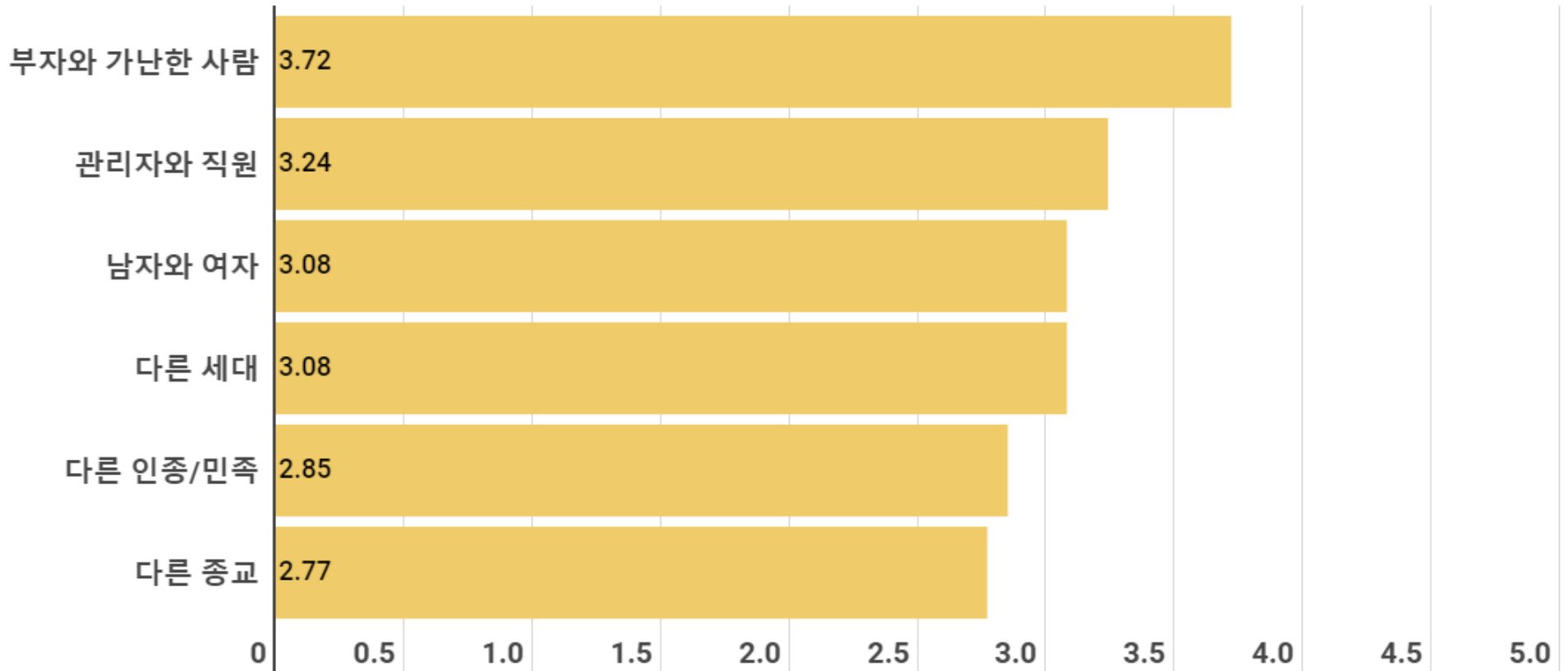
강북구 주민들은 우리사회가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
일반적으로 신뢰와 사회적자본이 높을수록 행복한 사회라는 것이 정설!

현재 우리 사회 - 불안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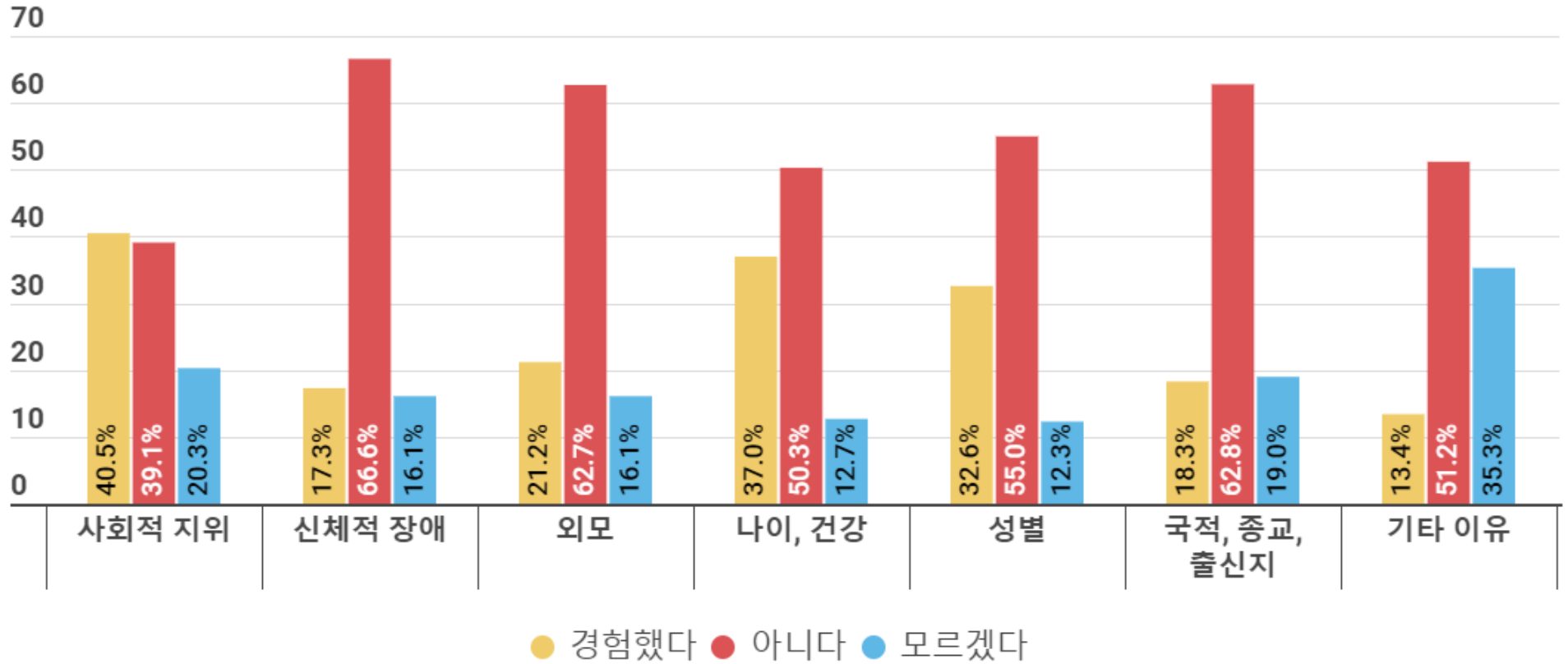
강북구 주민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행복도 저하!**

집단 간 사회적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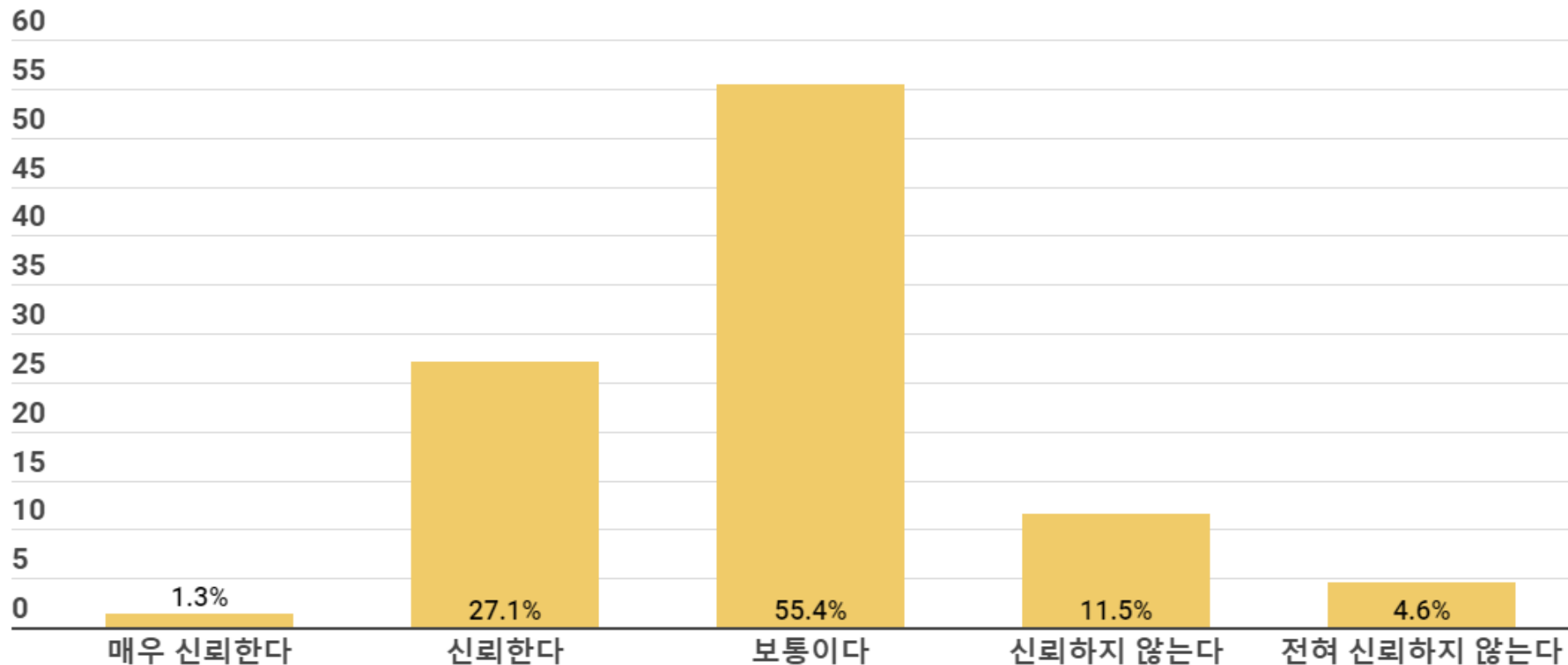
부자와 가난한 사람, 즉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크다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가 2번째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계층 간 갈등이 크다고 인식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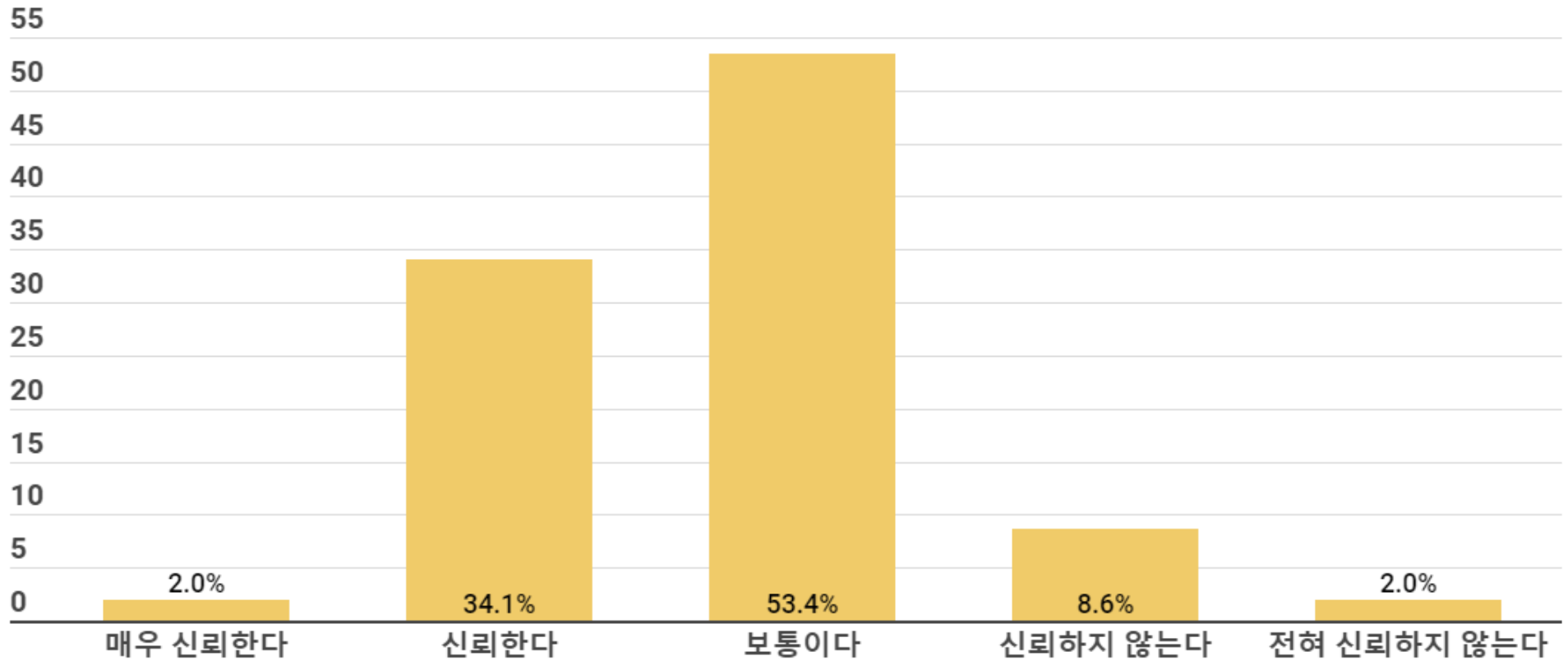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나이와 건강, 성별차이

공공기관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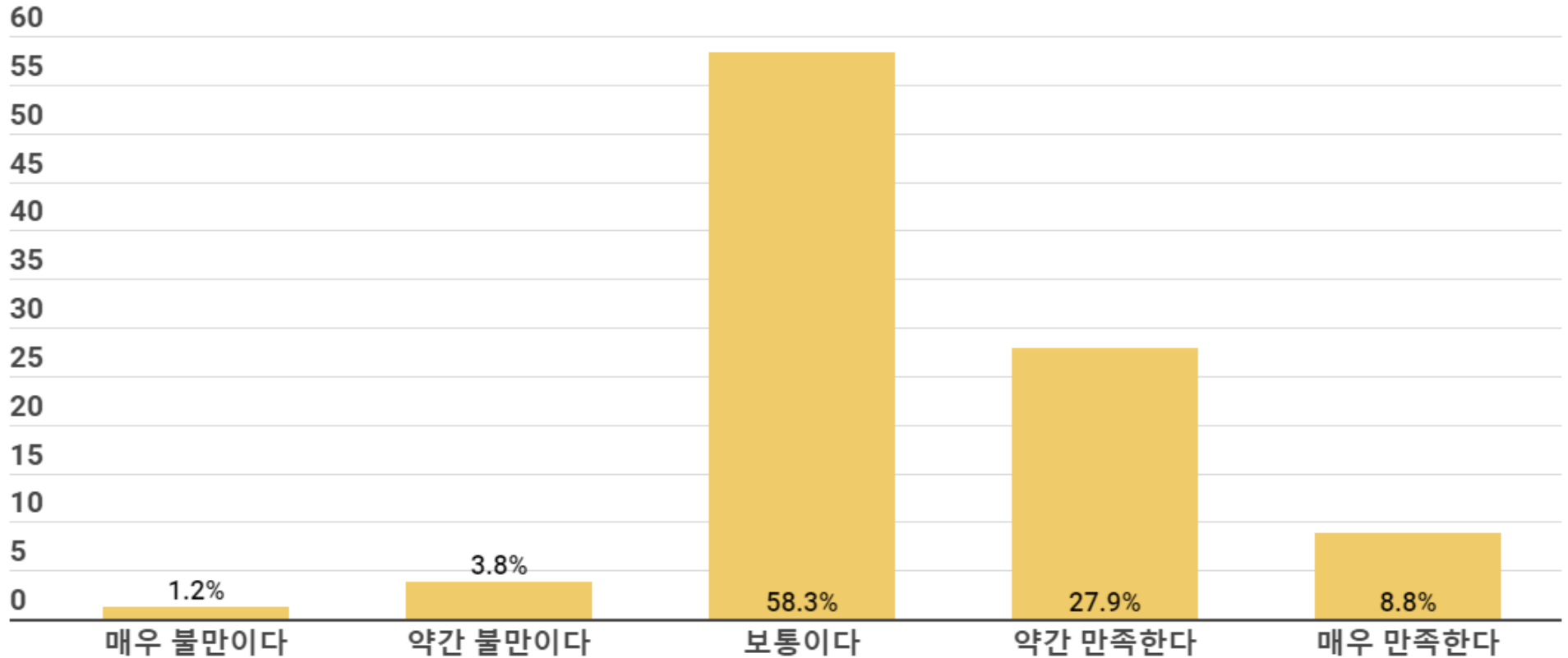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30% 미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 이상

이웃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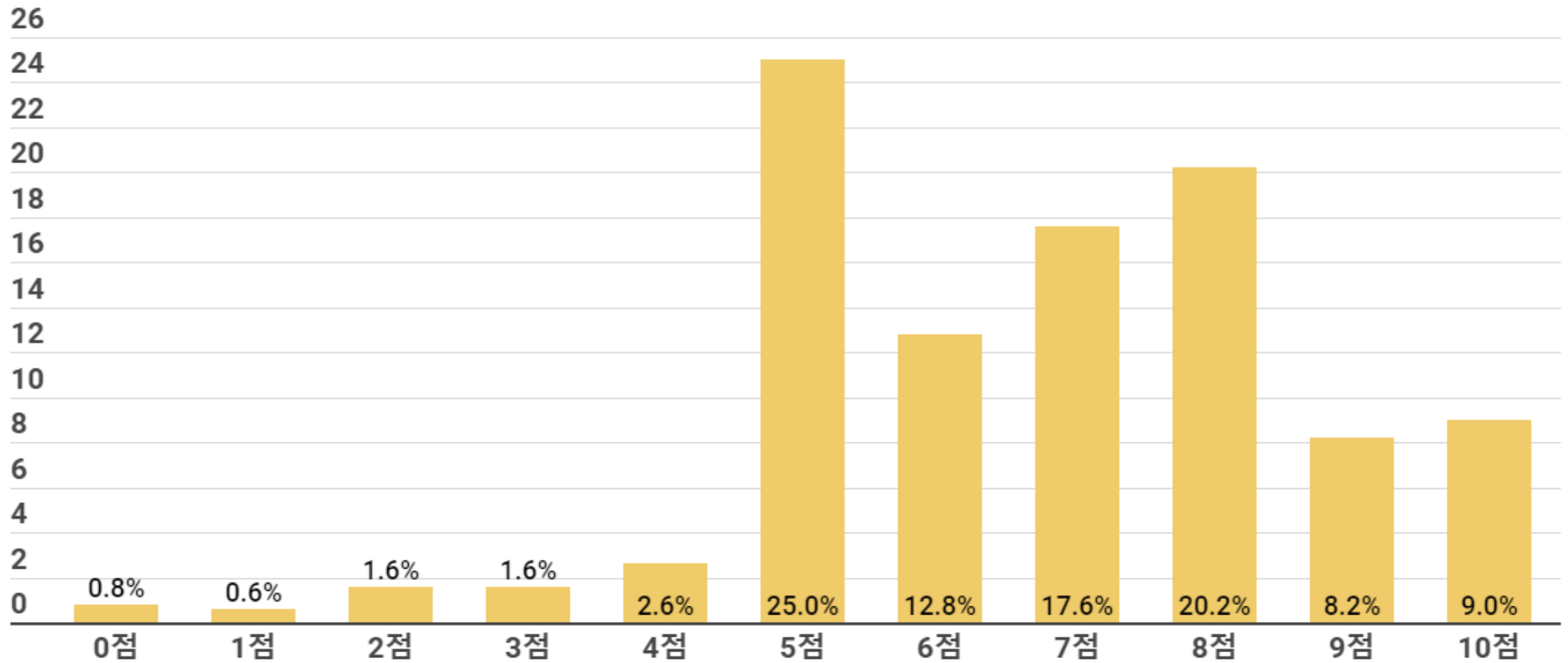
이웃에 대한 신뢰는 36%에 달함. 그러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0% 이상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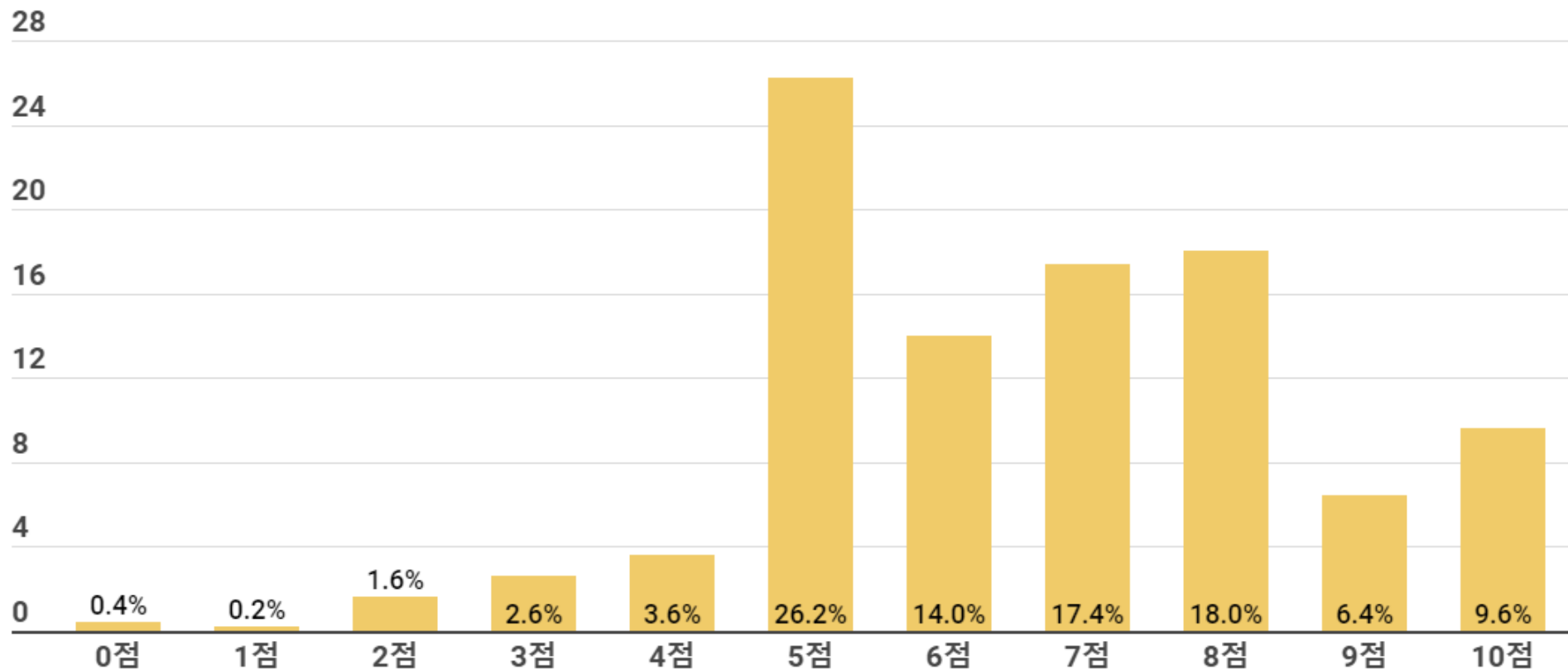
동네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5% 이상으로 높은 편

살기 좋은 거주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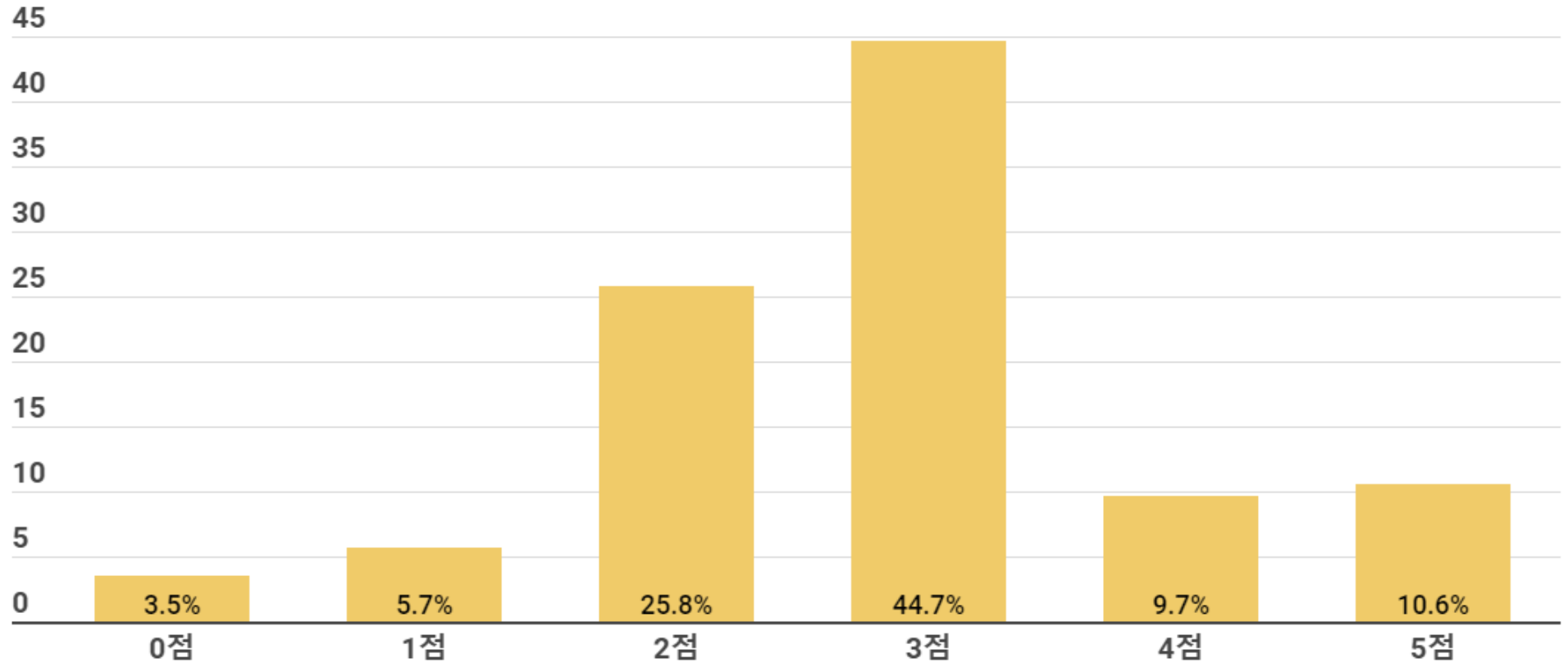
강북구가 살기 좋은 곳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6.69점으로 나타남.

지역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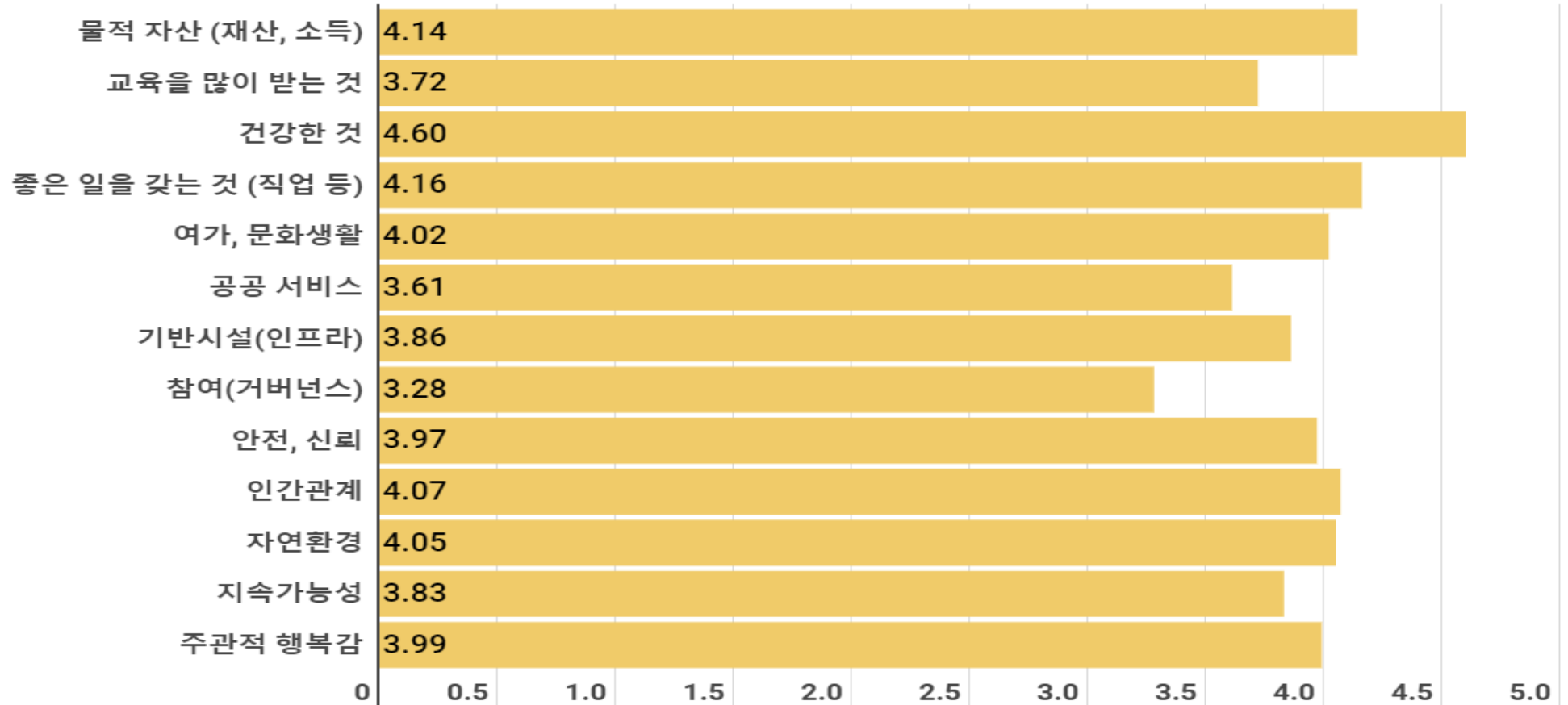
지역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응답자 평균 6.60점을 기록

주민으로서의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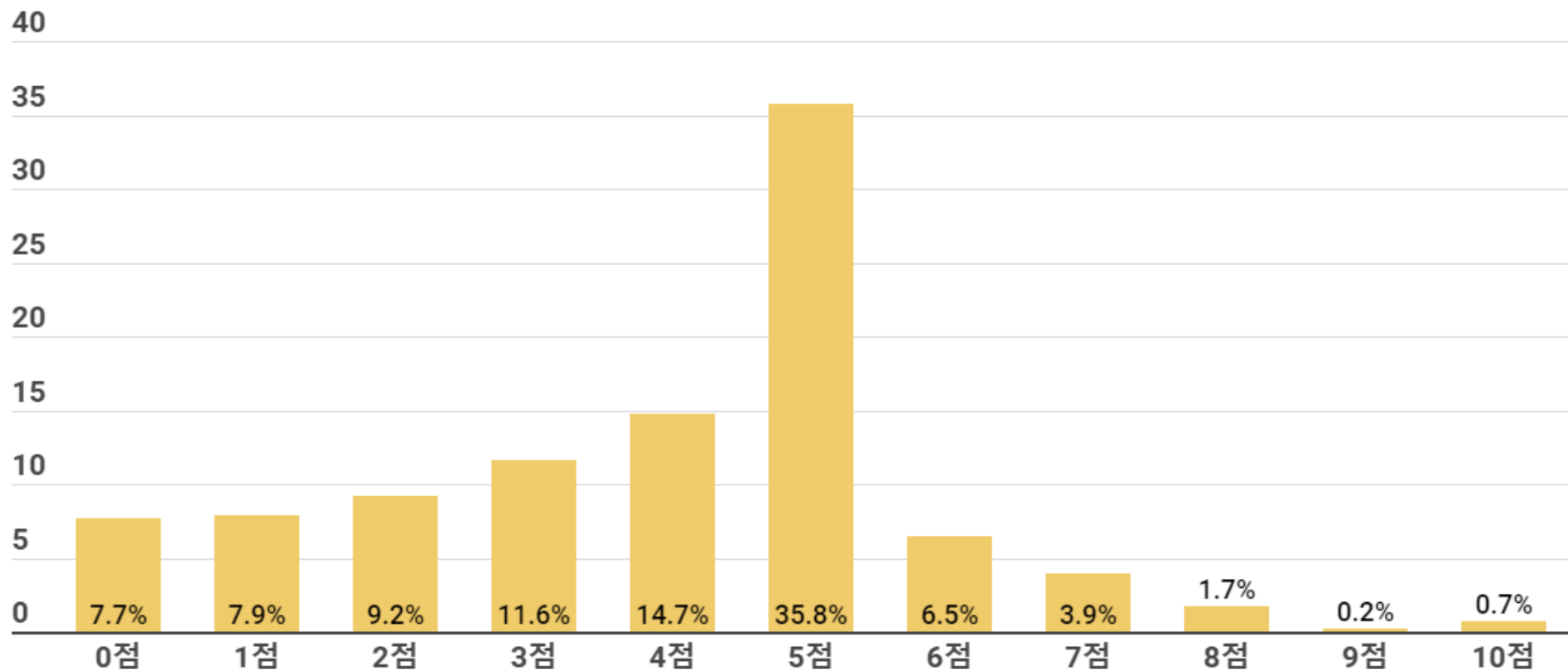
강북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은 60%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함.

나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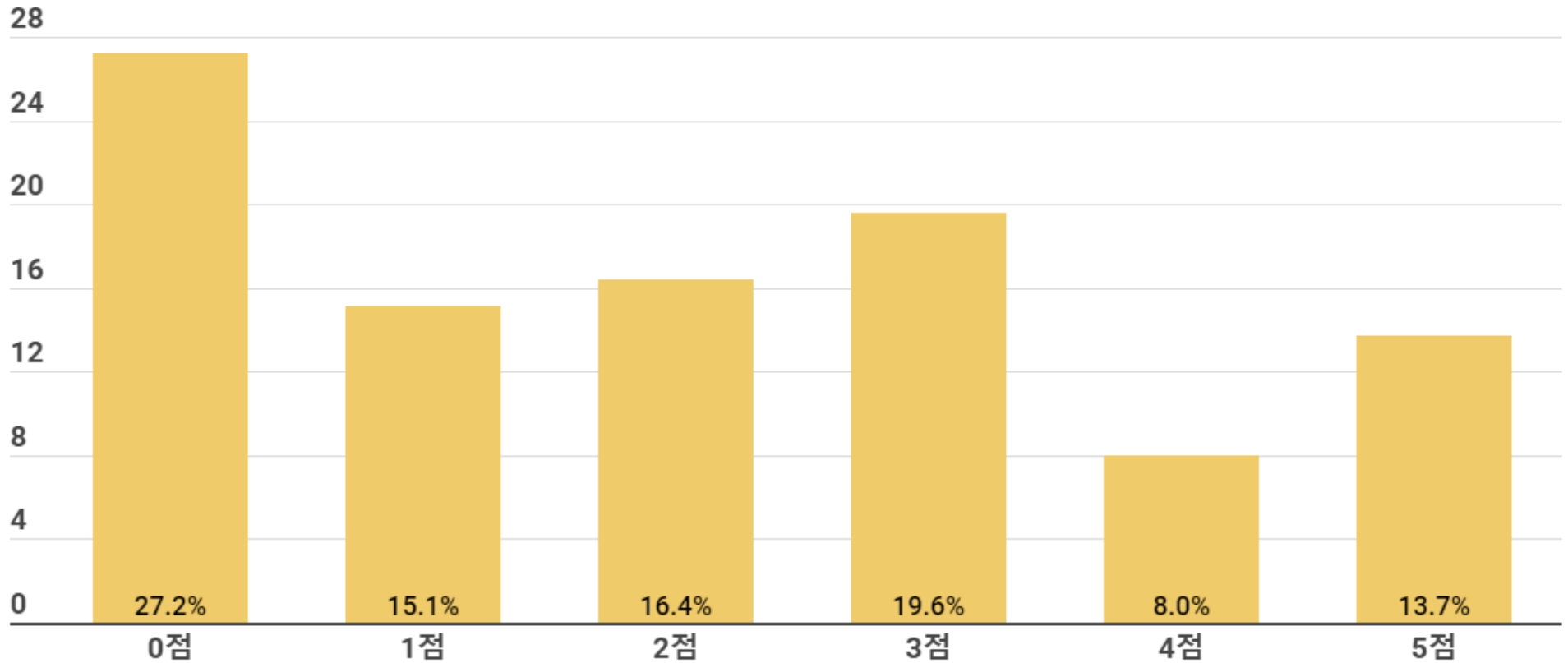
개인의 행복을 위한 중요도에서는 건강 > 좋은 일자리 > 재산과 소득 > 인간관계 > 자연환경 순

가구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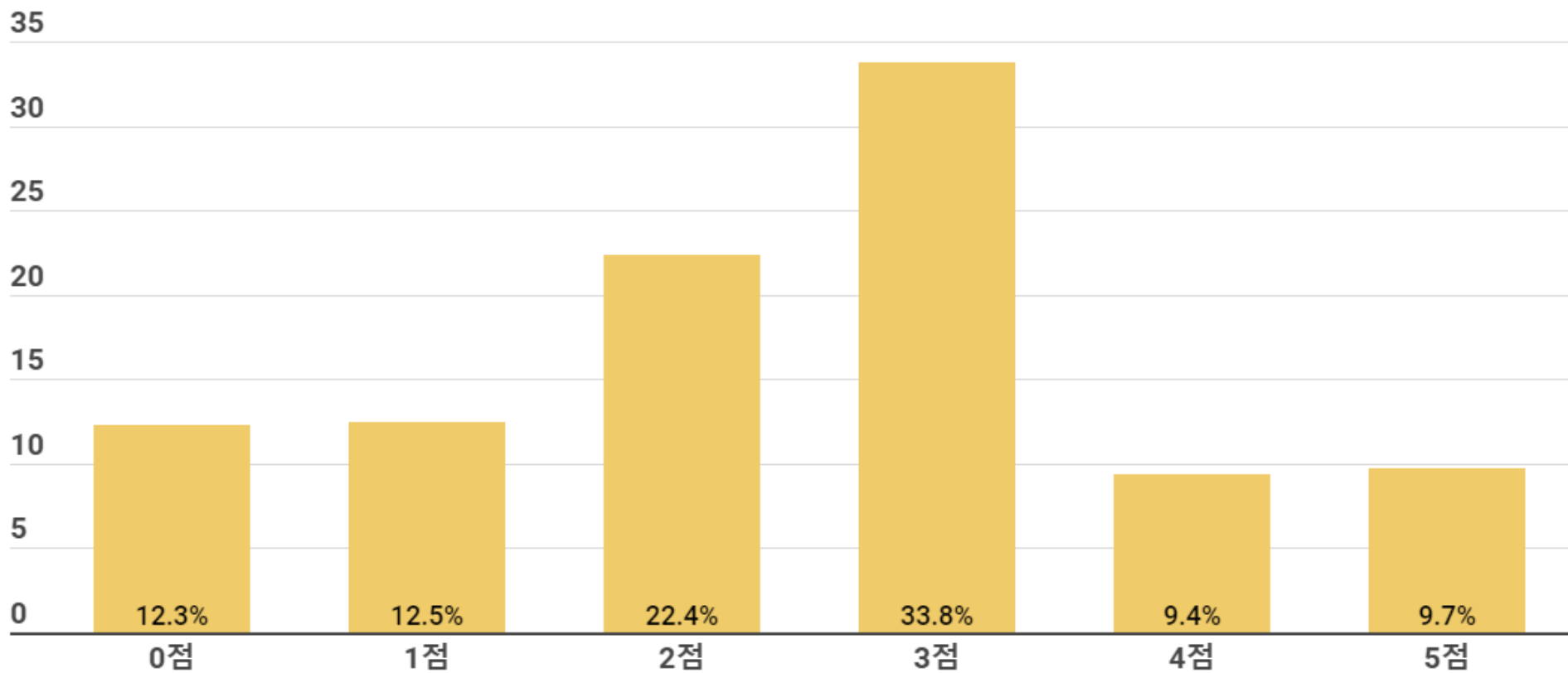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5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약 50%로서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중하위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향후 실직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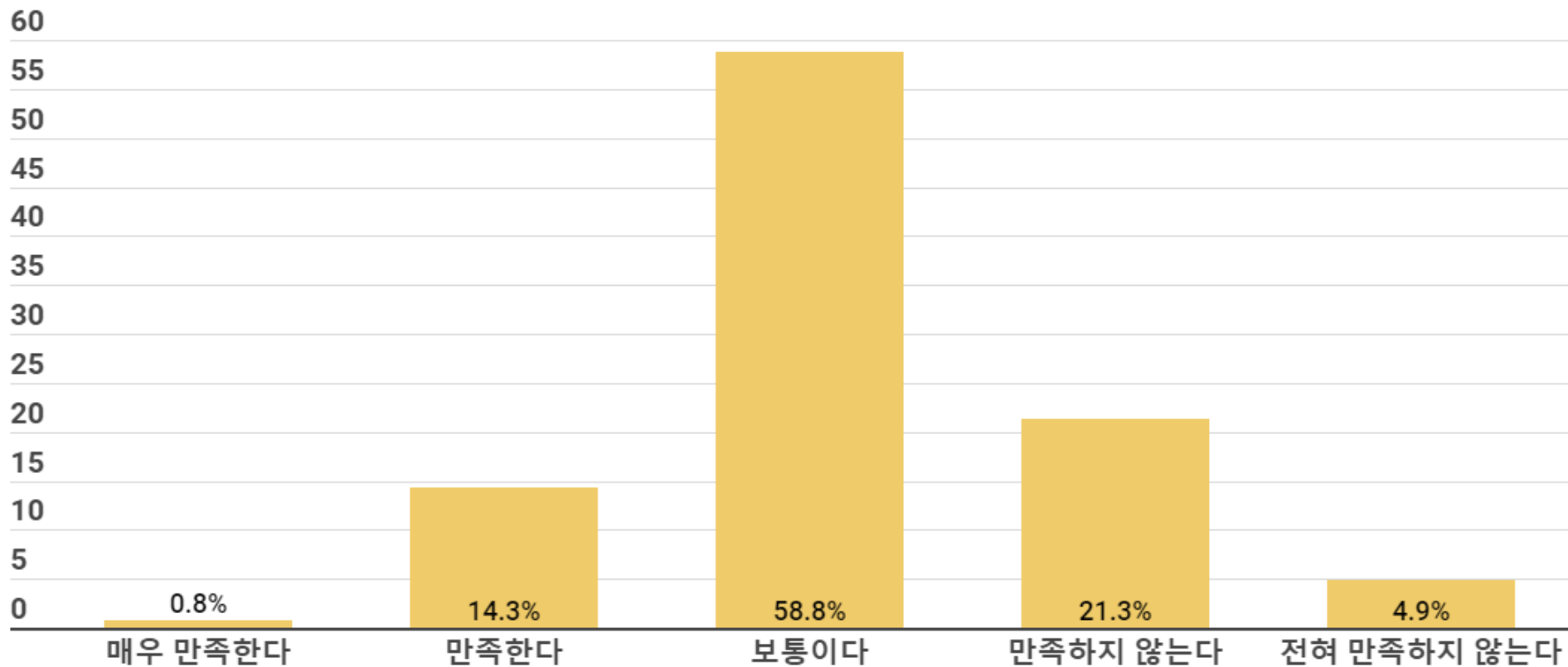
향후 실직의 위험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의 응답자가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비 지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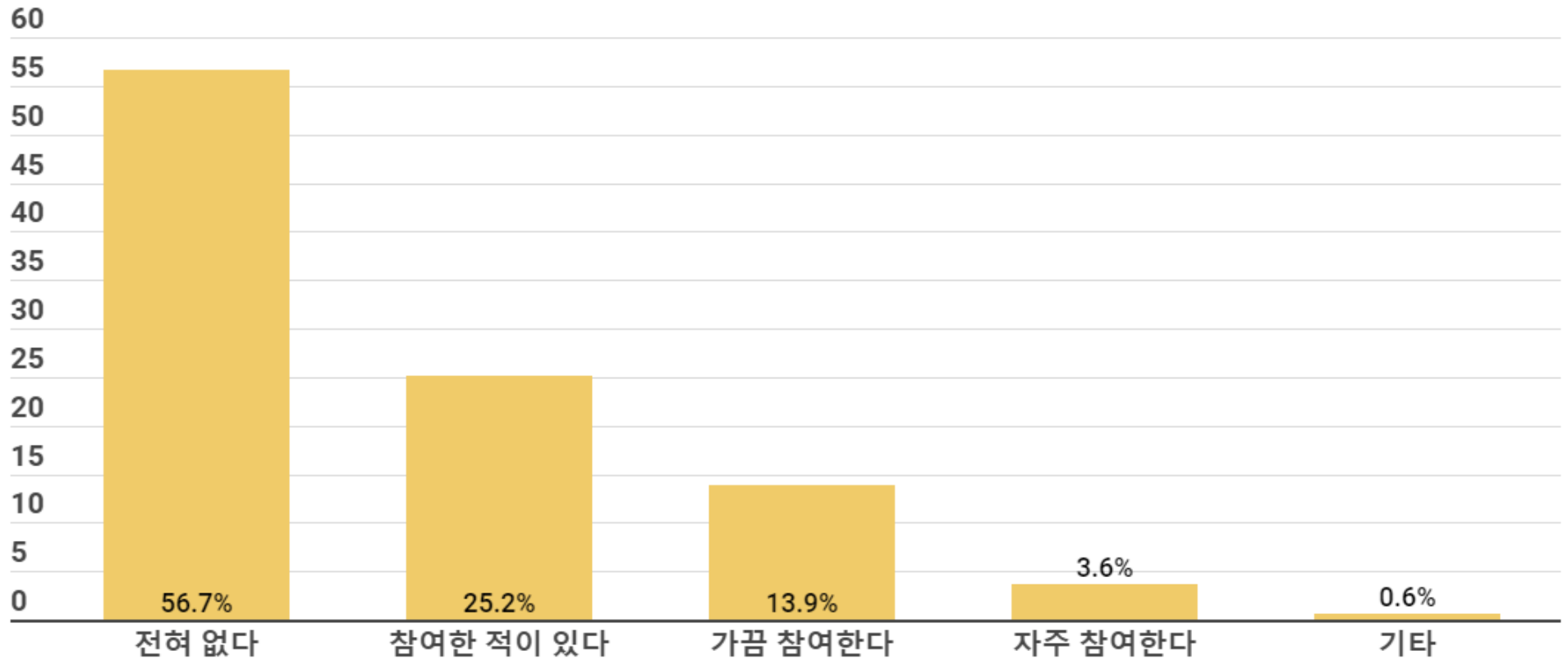
의료비 지출부담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사회경제적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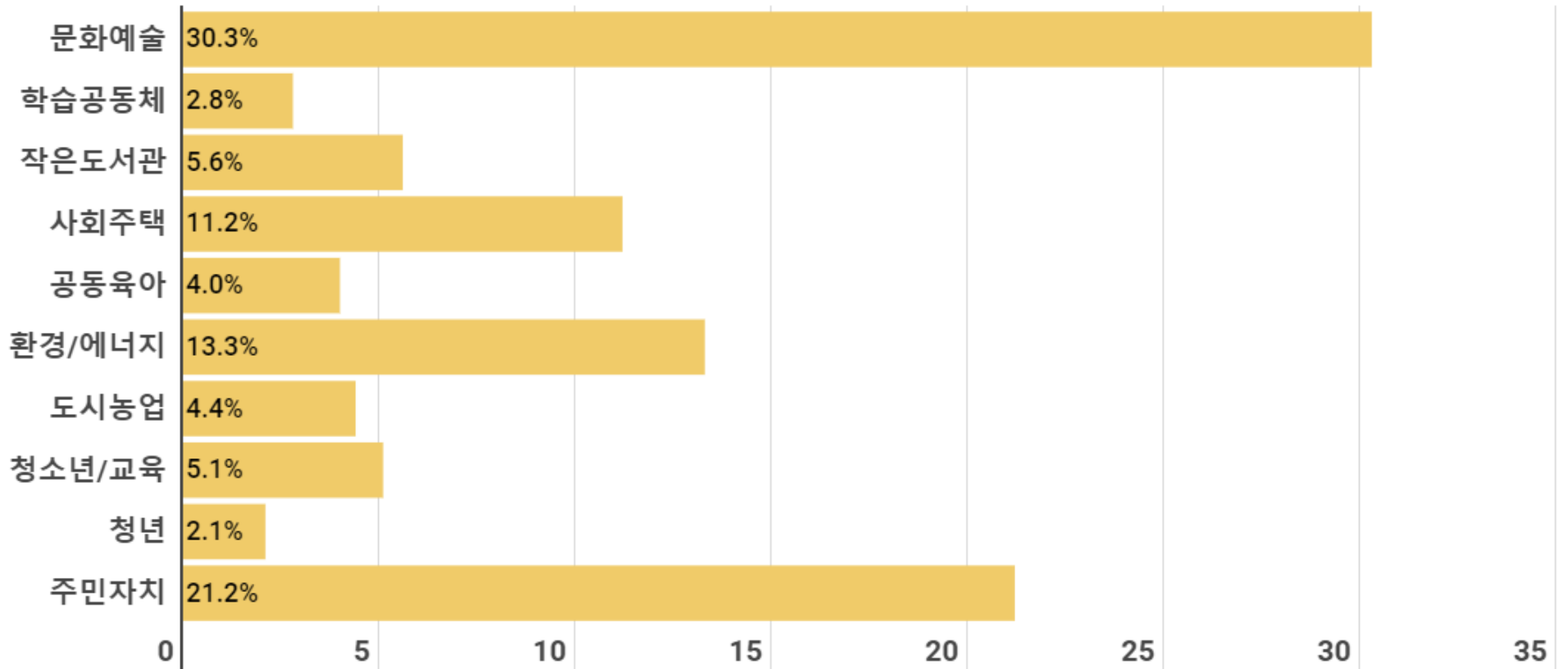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동네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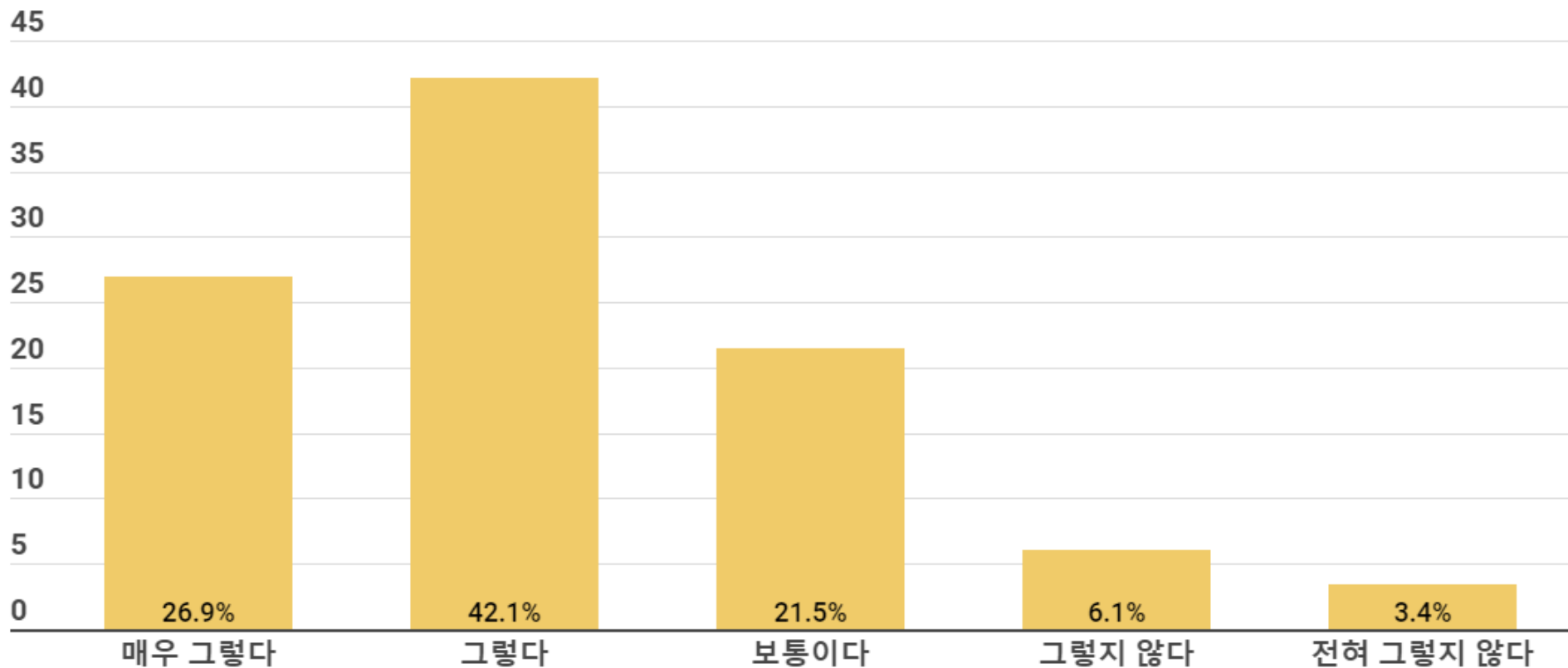
마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약 60%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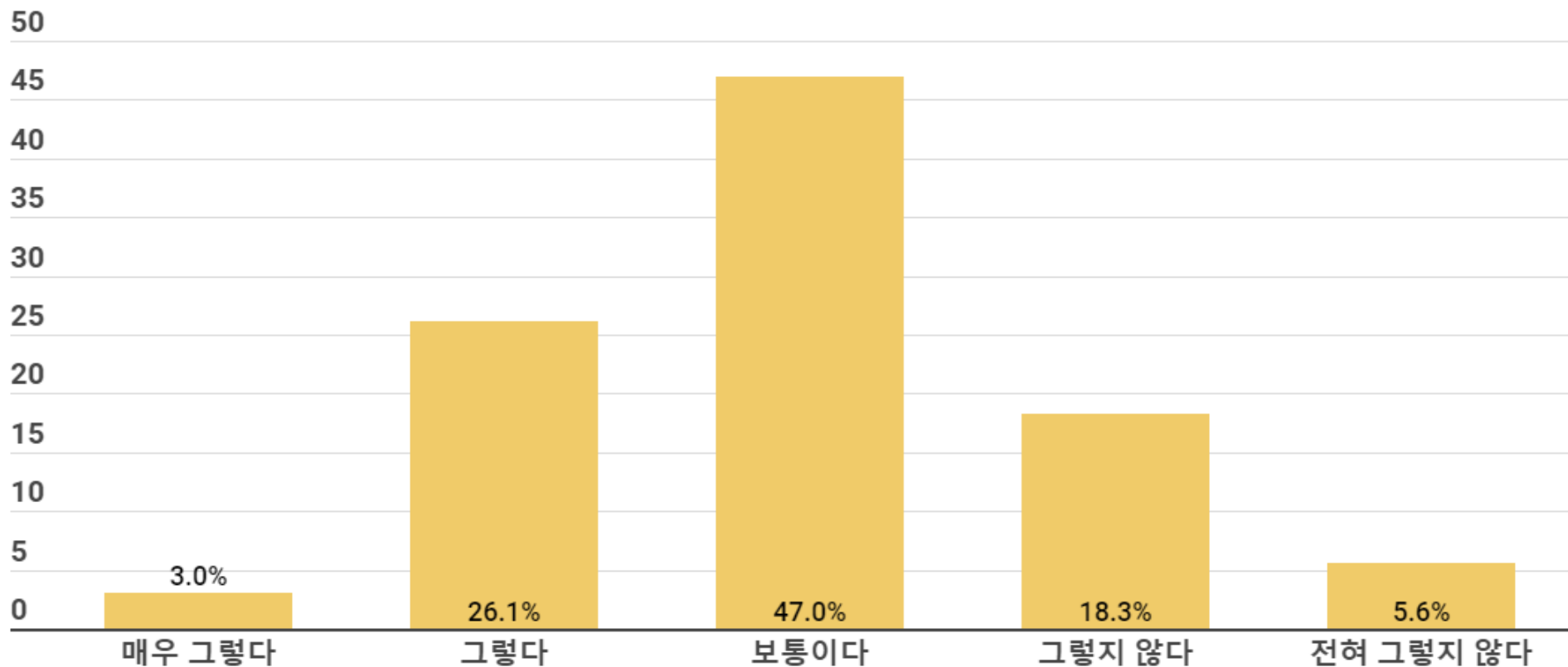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 주민자치 > 환경에너지 순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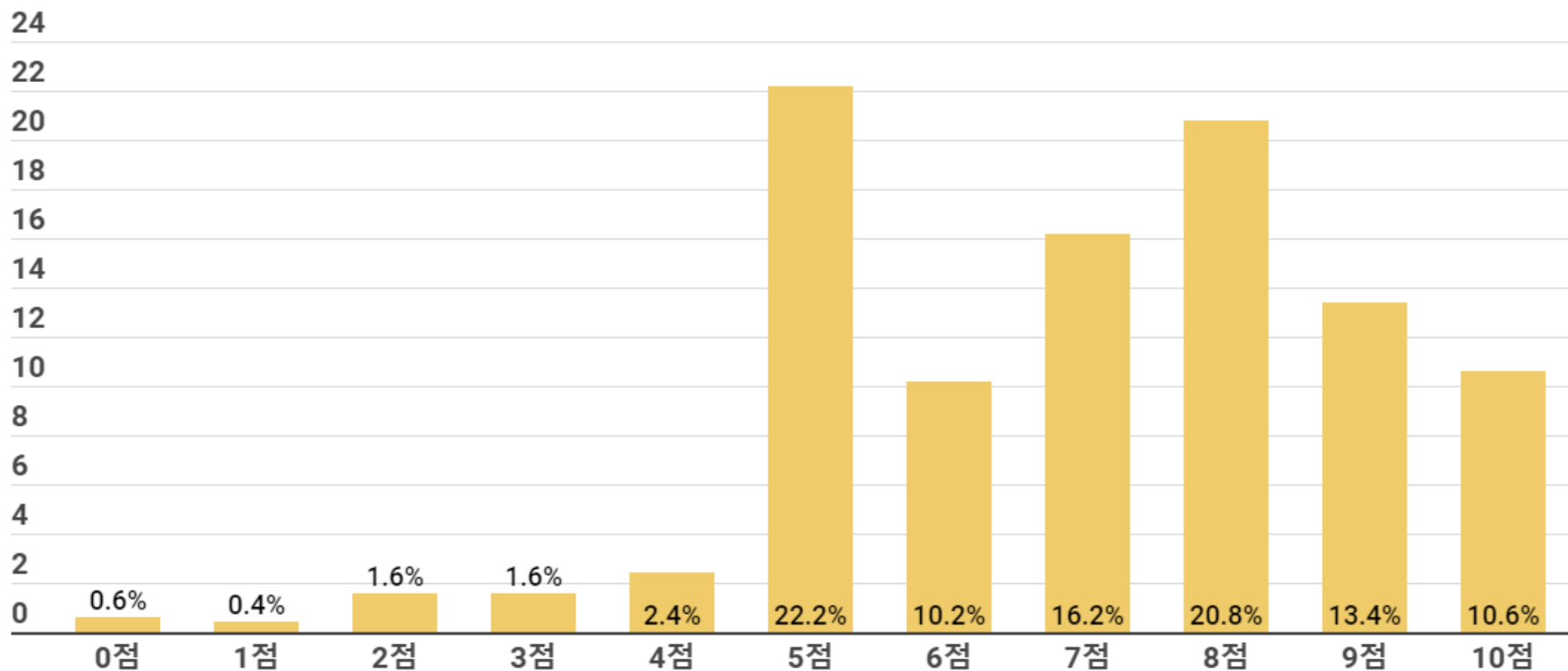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70%에 육박하고 있음.

현재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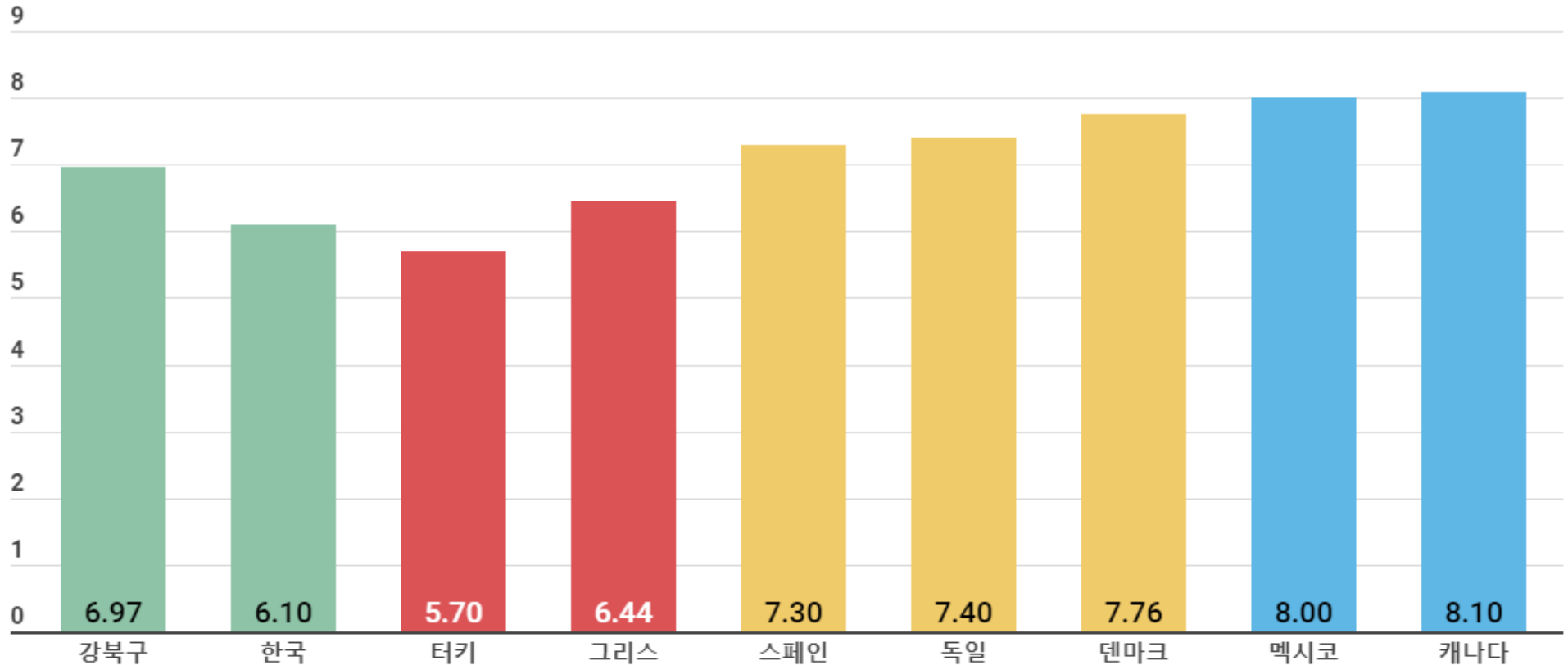
현재 행복감에 대해서는 부정보다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주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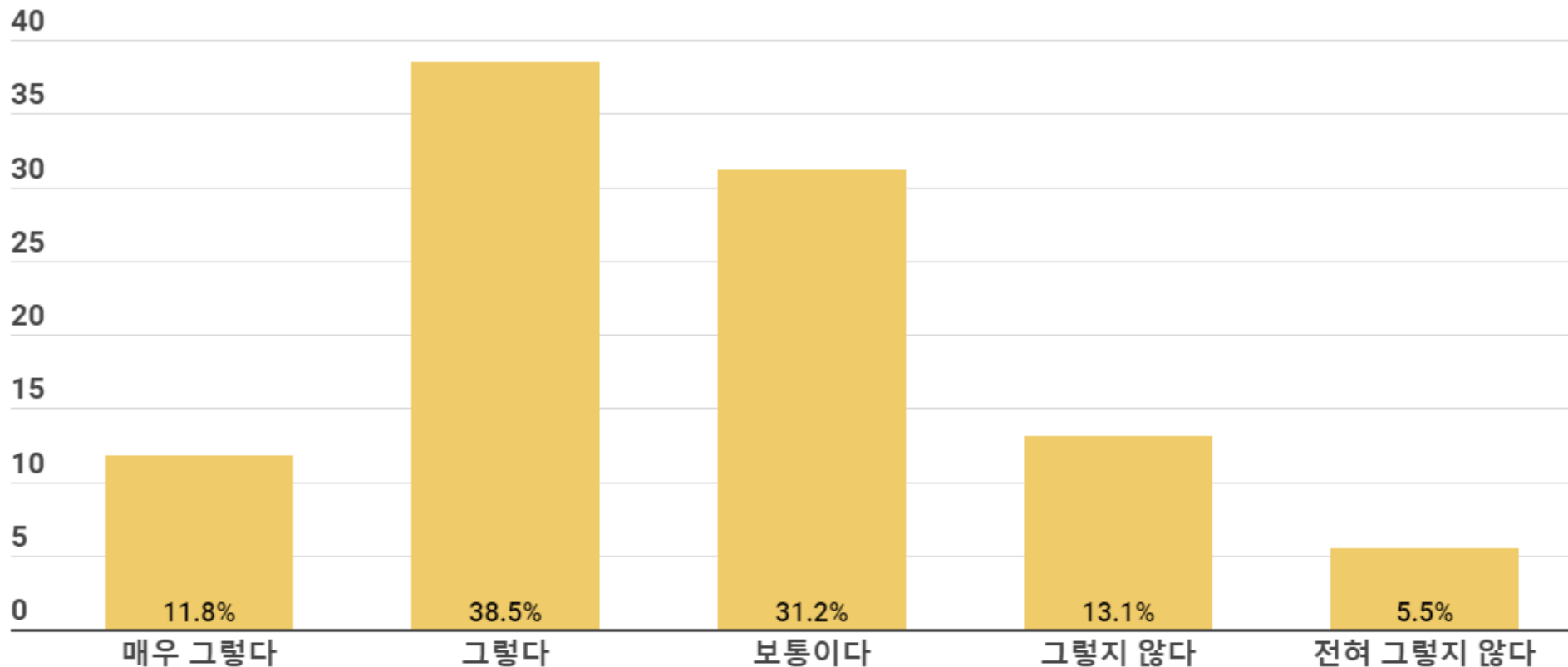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응답 평균은 6.97점.

주관적 행복감 비교



한국은 삶의 주관적 행복감의 측면에서도 33개 국가 중에서 하위 2위
강북구 평균(6.97)의 경우, 한국 평균(6.1)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

5년 후 행복감



5년 후 행복감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응답의 격차가 더욱 커짐. 미래에 더 행복할거라는 기대

사회적 질의 측면에서 강북구민의 행복

- 강북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가치는 건강 > 안전 > 인권 순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 현재 주민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
-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특히 불만족

총평

- 강북구 주민들은 우리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 신뢰가 부족한 사회, 미래가 불안한 사회
 - 계층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크다고 인식
- 차가운 사회에서 강북구 주민들은 “지역”을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
 - 이웃과 동네 주민과의 양호한 관계망, 지역과 주거환경에 대한 비교적 높은 만족 확인
- 사회의 질 측면에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 좋은 일자리/일거리 창출과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강북구민의 행복

- 개인적 행복요인으로는 건강 + 경제 + 관계 + 환경을 강조
 - 건강 > 좋은 일자리 > 재산과 소득 > 인간관계 > 자연환경 순
 - 레이어드, 행복의 빅세븐 : 건강/일, 재정상황/가족관계, 공동체 및 친구/자유/개인의 가치관
- 강북구민의 행복에는 “자연환경” 변수가 크게 작동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은 행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
 - 스스로를 중하위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직에 대한 불안, 의료비 부담이 큰 주민들

- 지인관계는 양호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관계에서는 취약
 - 공동체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주민자치, 환경/에너지 분야가 가능성의 영역으로 포착

총평

-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큰 주민들
 - 환경이 좋을수록 환경파괴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큰 양상
- 한국 평균보다 높은 주관적 행복감
 - 경제적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확인시켜 줌.
 - 주민들은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한 행복기대를 나타냄.
- 강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1) 지역의 일자리/일거리 창출 2) 문화예술분야 강화 3) 자연환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총평

사회적 질과 삶의 질을 종합하면 강북구 행복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일자리

- 재산과 소득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
- 지역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인 대안 : (영세자영업자)돌봄, 자원순환 등 위기대응 일자리

• 미지근한 지역공동체를 보다 따뜻한 공동체로

- 차가운 사회에서 주민들은 가족에 더하여 이웃과 지인, 동네주민 간의 느슨한 관계망으로 버티고 있음
- 공공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동체 참여경험은 적고 낯선 타인에게는 배타적인 주민들
-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중요성(주민들의 동네소속감이 큰만큼 동네활동촉진)

•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행복정책의 주요 핵심 콘텐츠

-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연환경을 콘텐츠로 한 다양한 사업 구상 필요 : 숲세권, 공동체정원, 공공미술 접목 등